



혜성가의 구조적 특성

주술성 여부를 중심으로

The Structural Character of Hyeseongga Focusing on the Controversy of Shamanism

저자 손동국
(Authors) Son, Dong-kuk

출처 [서강인문논총 37](#), 2013.08, 143-163(21 pages)
(Source)

발행처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ublisher)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32332>

APA Style 손동국 (2013). 혜성가의 구조적 특성. 서강인문논총, 37, 143-163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07/29 11:0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혜성가〉의 구조적 특성

—주술성 여부를 중심으로—

손 동 국*

1. 서론
2. 〈혜성가〉의 구조적 특성
3. 결론

〈국문초록〉

신라시대 시가 작품 〈혜성가〉는 지금까지 주로 주술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들 논의의 대부분은 설화 텍스트에서 ‘용천사가 혜성가를 지어 부르자 혜성의 변괴가 없어지고 일본의 군대도 되돌아갔다(時天師作歌歌之, 星怪則滅, 日本兵還國)’고 기술된 점을, 〈혜성가〉의 장르적 성격을 결정하는 전제로 삼았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설화 텍스트에 기술된 내용을 문학 텍스트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아 〈혜성가〉가 주술성을 지닌다고 여기는 판단은 과연 문학적 논의에 따른 판단이라 할 수 있는가. 둘째, 설화 텍스트에 나타난 비사실적 내용(노래를 지어 부르자 혜성과 일본군이 사라진 내용)마저도 〈혜성가〉 논의의 근거로 삼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설화 텍스트의 내용을 합리적 판단을 통해 참고하되, 무엇보다도 〈혜성가〉 시 텍스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혜성가〉를 주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찰하고, 〈혜성가〉의 주술성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을 논의했다.

그 결과 〈혜성가〉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사고방식은 비합리적이고 주술적인 면모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된다. 즉 설화 텍스트의 내용이 주술적 기능을 지시하지만, 정작 〈혜성가〉의 내적 의미 구조에는 주술성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없는 셈이다. 〈혜성가〉의 주술성은 내적 의미 층위가 아니라 연행 층위에서 집중적으로 고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후속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주제어 : 혜성가, 주술성, 주술적 기능, 주가(呪歌), 향가, 신라시대 시가

* 서강대학교 박사 과정 수료.

1. 서론

<혜성가(彗星歌)>는 신라 진평왕 때 나타난 혜성의 변괴를 없애고 왜병의 침략을 막기 위해 용천사(融天師)가 지었다는 시가 작품이다.

이 작품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三國遺事)』(권5 용천사 혜성가조)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제5 거열랑, 제6 실처랑(혹은 돌처랑이라고 함), 제7 보동랑 등 세 화랑의 무리들이 금강산에 유람하러 했다. 그런데 혜성이 심대성을 범하는 일이 생기자 낭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가지 않으려 했다. 그 때 용천사가 노래를 지어 부르자 혜성의 변괴가 없어지고 때마침 일본의 군대도 되돌아가 도리어 복이 되었다. 대왕이 기뻐하여 낭도들을 금강산에 보내어 유람하게 하였다.

第五居烈郎, 第六實處郎(一作突處郎), 第七寶同郎等, 三花之徒, 欲遊楓岳. 有彗星犯心大星, 郎徒疑之, 欲罷其行, 時天師作歌歌之, 星怪則滅, 日本兵還國, 反成福慶. 大王歡喜, 遣郎遊岳焉.

이 <혜성가>의 향찰 표기를 해독하여 그 시어의 소리와 뜻을 밝히고자 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양주동(梁柱東), 홍기문(洪起文), 김완진(金完鎭)이 있는데,¹⁾ 그 가운데서 널리 알려진 양주동의 해독은 다음과 같다.

네 시스몌ᄃ 乾達婆의
노론 잣홀란 브라고
예스 軍두 옷다
쵸술얀 이 이슈라

예진 동해(東海) 물가 건달파(乾達婆)의
논[遊] 성(城)을랑 바라보고
'왜군(倭軍)도 왔다!'고
봉화(烽火)를 든 변방(邊防)이 있어라!

1) 양주동, 『增訂古歌研究』, 박문서관, 1942; 홍기문, 『향가 해석』, 평양: 북한 과학원, 1956; 김완진,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1.

三花의 오름보샤을 들고	세 화량의 산(山) 구경 오심을 들고
돌두 브즈리 허렐바에	달도 부지런히 등불을 켜는데
길빨 별 비라고	길 쓸 별을 바라보고
彗星여 슬뵈여 사라미 잇다	‘해성이여!’ 사뵈 사람이 있구나!

아으 둘 아래 떠갓더라	아으, 달은 저 아래로 떠갔더라.
이 어우 므슴사 彗사기 이실꼬	이 보아, 무슨 해성(彗星)이 있을꼬.

다행히도 <해성가>의 경우 다른 신라시대 시가작품보다는, 시 작품의 이해의 기초가 되는 어학적 해독과 시 형태의 기본적 양상에 대한 논의가 대체로 갖추어져 있는 편이다.²⁾

<해성가>는 주로 주술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가 진행되었다. 즉, <해성가>를 주가로서 인정하는 논의와 주술성에 다른 요소가 섞인 복합된 실체로 인정하는 논의, 주가로서 거의 인정하지 않는 논의 등이 있었다.³⁾ 그런데 이들 중에서 <해성가>의 주술성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논의의 대부분은 설화 텍스트에서 ‘용천사가 해성가를 지어 부

2) <해성가>의 해독에서 연구자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6행의 ‘月置八切爾數於將來尸波衣’이다. 양주동과 홍기문은 이 부분을 각각 ‘달도 부지런히 등불을 켜는데’와 ‘달수를 브지러니 해여 갈제’로 해석했고 김완진은 ‘달도 갈라 그어 찾아들려 하는데’로 해독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논자간 큰 해독의 차이는 없는 편이다.

3) <해성가> 장르의 논의에서 ‘주술성’은 핵심적 논의거리였다. 이들 논의는 크게 다음 세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 (1) 주가로서의 면모를 거의 그대로 인정하는 논의(대표적으로 이능우, 『향가의 마력』, 『현대문학』 21, 1956; 김열규, 『한국 민속과 문화연구』, 일조각, 1980; 임기중, 『향가의 주사적 시문법』, 『동국논총』 32, 1993; 최경실, 『향가의 주술성』, 성균관대학교, 1983.)
- (2) 다른 요소와 복합된 실체로 인정하는 논의(대표적으로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0.)
- (3) 주가로서 거의 인정하지 않는 논의(대표적으로 김승찬, 『한국상고문학연구』, 제일문화사, 1978;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0; 박인희, 『삼국유사와 향가의 이해』, 월인, 2008.)

르자 혜성의 변이가 없어지고 일본의 군대도 되돌아갔다(時天師作歌歌之, 星怪則滅, 日本兵還國)고 기술된 점을, <혜성가>의 장르적 성격을 결정하는 전제로 삼았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시 텍스트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및 해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설화 텍스트에 실린 내용을 거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혜성가>가 주술성을 담보하고 있음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 과제는 자연스럽게 <혜성가> 시 텍스트 안에서 ‘주술적’ 요소를 찾는 일⁴⁾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는 설화 텍스트에 기술된 내용을 문학 텍스트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아 <혜성가>의 주술성을 당연히 여기는 판단은, 과연 문학적 논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이다. 물론 향가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설화 텍스트는 시 텍스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설화 텍스트는 어디까지나 이차적 자료이며, 향가 작품의 해석은 일차적으로 시적 구성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혜성가>는 역사적 자료이긴 하되, 객관적 사건을 기술한 사료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 창작된 문학작품인 것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혜성가> 시 텍스트 자체를 하나의 구조적 완결성을 갖춘 텍

4) <혜성가>의 시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주술적 요소를 증명하려는 견해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열규는 혜성을 성귀가 아니라 별의 길조로 단언하는 그 말에 주의(呪意)가 있으며 없어야 할 현실을 언어에 의해 선행적으로 묘사한 것은 ‘혜성이어 없어져라’의 소극적 발동이라고 하였다.(김열규, 앞의 책, 17쪽 참조) 그리고 이재선은 왜병을 신기루로, 혜성을 길썬별로 환원시킴으로써 하나의 정상적인 결과를 기대하여 그런 결과의 조짐을 미리 전제하고 있음에 주술성이 있다고 파악했다.(이재선, 『향가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2001, 88쪽 참조) 오출세는 설화에 나타난 사실들이 시에서 부정되는 현상을 주가적 역설로 보고 있다.(오출세, 『새로 읽는 향가문학』, 아세아문화사, 1998, 38쪽 참조) 최경실은 ‘~가 아니라 ~이다’라는 어법이 주술적 어법이라 칭했으며(최경실, 앞의 책, 60~61쪽 참조) 임기중은 혜성이 이미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선험적으로 달성하는 예고형 주사로 파악했다.(임기중, 앞의 논문, 17쪽 참조)

트로 인정하고, 그 내적 의미망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설화 텍스트 또는 당대 사회 배경 지식에 대한 적절한 참고는 불가결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논의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설화 텍스트에 나타난 비사실적 내용(노래를 지어 부르자 해성과 일본군이 사라진 내용)마저도 <해성가> 논의의 근거로 삼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문제다. 설화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시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지만, 설화 텍스트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는 고대의 사유 체계에 의해 형성된 <해성가>의 문학적 가치를 오늘날의 관점으로 재단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신라시대 시가 작품을 해석할 때 설화 텍스트가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을 통해 시의 창작과 향유를 둘러싼 역사적 정황을 시 텍스트를 통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우리는 설화 텍스트에 사용된 언어가 시 텍스트에서 사용된 시적 언어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또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설화 텍스트의 비사실적 내용을 중요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참고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질문들과 관련된 문제의식으로 마련되었다. 문학작품으로서 <해성가>를 다룰 때, 무엇보다도 <해성가> 시 텍스트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시적 화자의 시적 대상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여기서 설화 텍스트는 시 텍스트를 해석함에 있어 <해성가>의 창작 당시의 현실 맥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다만 설화 텍스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을 통해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 <해성가>의 작품

세계를 면밀히 살펴 <혜성가>를 주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찰하고, <혜성가>의 주술성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시 텍스트에 나타난 시상(詩想)의 전개방식 및 표현상의 특징 등을 중심으로 하여 <혜성가>의 구조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때 <혜성가>의 설화 텍스트를 살펴 신빙성 있는 정보를 가려내고, 이를 통해 <혜성가> 시 텍스트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밑거름을 삼고자 한다.

2. <혜성가>의 구조적 특성

<혜성가>는 다른 10구체 향가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구성 면에서 세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I : 제1~4행, II : 제5~8행, III : 제9~10행). 서론에서 밝혔듯이 <혜성가>의 경우 다른 향가작품에 비해서 어학적 해독과 시 형태의 기본적 양상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져 있는 편이다. 따라서 누구의 해독을 따라한다 하더라도 작품 분석 및 해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시행구분과 어석에서 일단 양주동의 해독을 바탕으로 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들의 해독을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I)

舊理東尸汀叱乾達婆矣
遊鳥隱城叱盼良望良古
倭理叱軍置來叱多
烽燒邪隱邊也藪耶

예전 동해(東海) 물가 건달파(乾達婆)의
논[遊] 성(城)을랑 바라보고
'왜군(倭軍)도 왔다!'고
봉화(烽火)를 든 변방(邊防)이 있어라!

(I)에서 화자는 과거에 ‘건달파의 논 성(신기루)’를 보고 일본군으로 착

각하여 봉화를 올린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I)에 등장한 일본군은 ‘예전’에 등장했던 것으로 착각된 존재로서, 현재 쳐들어온 일본군의 존재를 강력하게 환기시킨다. 시 텍스트의 내용에 따르면 일본군은 애초에 쳐들어 온 것이 아니라 신기루에 의해 착각된 존재에 불과하지만, 설화 텍스트의 내용에 따르면 일본군의 침입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성가>에 해당하는 관련 설화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제5 거열랑, 제6 실처랑(혹은 돌처랑이라고 함), 제7 보동랑 등 세 화랑의 무리들이 금강산에 유람하러 했다. 그런데 해성이 심대성을 범하는 일이 생기자 낭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가지 않으려 했다. 그 때 율천사가 노래를 지어 부르자 해성의 변괴가 없어지고 때마침 일본의 군대도 되돌아가 도리어 복이 되었다. 대왕이 기뻐하여 낭도들을 금강산에 보내어 유람하게 하였다.

第五居烈郎，第六實處郎(一作突處郎)，第七寶同郎等，三花之徒，欲遊楓岳。有彗星犯心大星，郎徒疑之，欲罷其行，時天師作歌歌之，星怪則滅，日本兵還國，反成福慶。大王歡喜，遣郎遊岳焉。

뒤이어 살펴보겠지만, <해성가> 시 텍스트에서 일본군과 해성은 중요한 소재로 취급된다. 설화 텍스트에서도 이 소재들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율천사가 <해성가>를 지어 부른 결과로 해성의 변괴가 없어지고 일본의 군대도 사라졌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해성가>의 창작 시기에는 이미 해성이 출현해 있으며 일본군도 침입했었던 것이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성의 출현과 일본군 침입이 발생한 시간적 순서이다. 이에는 다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① 해성의 출현 이후에 일본군의 침입이 있었던 경우

② 일본군의 침입 이후에 혜성의 출현이 있었던 경우

먼저 ①의 경우를 통해 혜성 출현이라는 징조가 먼저 나타나고 그 후에 실제로 일본군이 침입하여, 당대에 위기 상황이 초래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 일본군의 침입 사건은 불길한 징조에 의해 미리 알려진 위기 상황이다. 당대에 혜성의 출현이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불길한 징조가 위기 상황으로 현실화된 것이 일본군의 침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일본군의 침입은 혜성의 출현이 야기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의 범주 안에 속하게 된다. 즉 혜성의 출현이 반드시 일본군의 침입을 야기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일본군의 침입은 혜성이 예고하는 수많은 위기 가능성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한 것이다.

②의 가능성은 설화 텍스트에서 혜성의 출현은 기록되어 있으나 일본군의 침입은 기록되지 않음으로 인해 고려 대상이 될 만하다. 혜성의 출현과 소멸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반면, 일본군의 침입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회군만 기록되어 있어, 일본군의 침입이 혜성의 출현 이전에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혜성의 출현이 당시에 이미 침입해 있는 일본군의 징조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혜성의 출현은 이미 침입한 일본군 이외에 또 다른 위기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즉 이 때 혜성은 이미 일본군의 침입으로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었던 데 덮친 격으로 이와는 다른 위기를 추가적으로 몰고 오는 셈이 된다.

아무래도 설화 텍스트에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하나를 사건 발생의 올바른 순서로 특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다음의 사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혜성의 출현과 일본군

침입의 사건은 인식 상 대등한 성질의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군의 침입이 그 자체로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성 출현은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위기 상황을 예고하는 ‘잠재적’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①의 경우에는 잠재적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는 해성의 출현이 일본군의 침입을 예고하거나 이끌어버린 셈이 되고, ②의 경우에는 해성의 출현이 일본군의 침입 상황 외의 또 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해성가>에서 화자가 일본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해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역시 일괄적으로 대등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미 층위에서 변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해성의 출현을 부정하는 것이 곧 일본군의 침입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식의 논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②의 가능성을 생각해본다면, 두 사건 간의 인과적 관련성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화 텍스트의 내용에 따르면, 노래가 창작된 당시에는 이미 해성이 출현했고 일본군도 침입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시 텍스트 (I)에서 화자는 해성이 아니라 일본군을 제재로 삼고 있다. 이는 해성의 출현과 일본군의 침입의 서로 다른 사건적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성의 출현은 엄밀히 말해 그 자체로 위기 상황이 될 수는 없고, 미래의 위험 상황을 예고하는 잠재적 속성을 지닌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군이 침입한 사건은 그 자체로 이미 현실적 위험 상황이다. <해성가>의 화자는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노래의 앞부분에 우선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급한 문제에 대한 관심부터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먼저 제시하는 것은 노래에 대한 청자의 주의를 모으고 나아가 직접적 위기에 따른 청중의 불안감을 급하게나마 어느 정도 해소시키려는 의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일부 논의에서는 화자가 ‘예전 동해 물가 건달과의 논 성을 바라보고 왜군도 왔다고 봉화를 든 변방이 있었다’고 언급한 것을, 주로 현재 침입한 일본군의 출병을 부정하려는 의도로 읽었다.⁵⁾ 옛날에 신기루를 일본군이라고 착각했듯이 지금의 일본군의 출병 정보도 오보일 것이라는 논리로 읽었던 것이다. 그런데 화자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일본군이 이미 침입해 있는 현실 맥락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설화 텍스트에는 ‘노래를 부르자 일본군이 돌아갔다’라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노래를 부르기 직전 내지는 부르는 당시에는 일본군이 이미 침입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일부 논의들은 (I)이 일본군의 출병 자체가 없었음을 설파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다. 물론 이미 일본군이 침입한 상태에서 침입하지 않았다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부정으로서 그 자체가 이미 주술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어법의 주술적 의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인 주술적 기대 효과를 담보하는가를 캐내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일본군의 침입이 벌어졌던 현실 상황에서, 그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침입 자체가 없었다고 설파하는 것이 지니는 주술적 기대 효과가 그리 만족스러울만큼 가늠되지 않는다. 차라리 <혜성>가 이미 침입한 일본군의 존재를 인정한 상태에서 ‘일본군이여, 돌아가라’와 같은 식의 직접적인 주의가 갖든 노래라면, <혜성>를 지어부르자 일본군이 돌아갔다는 설화 텍스트의 내용은 그런대로 수궁이 갈 만하다.⁶⁾ ‘돌아가라’라는 언술이, 실제로 일본군을 회군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5) 주 2번에서 김열규, 이재선, 임기중 등의 논의를 참고바람.

6) 비록 노래 때문에 일본군이 돌아간다는 것이 합리적 관점에서는 불가한 것이지만, <혜성>의 설화 텍스트 역시 문학적 범주와 긴밀한 연관 관계에 있다는 점과 당대의 주술적 사유 세계를 고려했을 때 수궁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현실성 여부와는 별개로 주술적 기대 효과가 분명한 주술적 명령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성가〉의 화자는 일본군의 침입 자체를 없던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는 그 주술적 기대 효과마저도 불분명하게 하여 단순히 주술적 언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황당하고 모자란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에서 (I)이 일본군의 출병 자체가 없었음을 설파하고 있음을 들어 그것을 바로 〈해성가〉가 지닌 주술성의 실체로 파악하게 된 데에는 설화 텍스트에서 〈해성가〉를 지어 부르자 일본군이 회군했다고 언급한 것을 통해 〈해성가〉의 주술성을 ‘미리’ 파악한 경향이 한 몫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일본군을 돌아가게 만든 노래의 주술적 힘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어떻게든 시 텍스트에 나타난 화자의 어법을 주술적인 것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이러한 해석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때 ‘건달파의 논 성(신기루)’은 일본군에 대한 일종의 메타포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신기루의 속성을 잘 생각해본다면 그것이 단지 ‘부재(不在)’를 지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신기루는 분명히 우리의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현상이며, 단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즉 신기루는 ‘실체 없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군의 출병 자체를 없었던 일로 여기고자 한다면, 일본군이 침입한 ‘현상’ 자체는 인정하되 그 실체 없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실체 없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되

7) ‘건달파’는 부처의 설법 자리에 나타나 불법을 찬양하고 불교를 수호하는 천악신(天樂神)이므로, ‘건달파의 논 성’을 ‘음악을 담당하는 귀신들이 사는 성’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귀신 역시 신기루와 마찬가지로 ‘실체 없는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군 침입으로 인해 야기된 불안을 해소하는 데 이 같은 언술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당대에 긍정적 인식의 대상이었던 불교의 신과 일본군을 동일시하는 것은 의미 상 어색하다고 생각된다.

며 텍스트에 주어진 단서로는 그 이상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⁸⁾ 그러나 이처럼 ‘건달과의 논 성’과 ‘일본군’의 비유적 관계에 주목한다면, <혜성>가 일본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주술성을 지닌다고 파악하는 기존 논의의 주요 관점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재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계속해서 (II)를 살펴보자.

(II)

三花矣岳音見腸烏尸聞古	세 화랑의 산(山) 구경 오심을 듣고
月置八切爾數於將來尸波衣	달도 부지런히 등불을 켜는데
道尸掃尸星利望良古	길 쓸 별을 바라보고
彗星也白反也人是有叱多	‘혜성이여!’ 사된 사람이 있구나!

(I)에서 현실에 당면한 위협상황이라 할 수 있는 일본군 침입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 (II)에서는 그 일본군 침입을 예고하고 또 어쩌면 야기할 수 있는 혜성의 출현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혜성 출현과 일본군 침입의 시간적 선후 관계에 대한 두 가지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보자. 먼저 혜성의 출현 이후에 일본군의 침입이 있었던 경우, 혜성의 출현은 일본군의 침입과 강력하게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다. 즉 화자는 일본군 침입의 징조가 되는 혜성의 존재를 부정해버림으로써 일본군의 침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기존 논의에서는 이 첫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온전히 납득되기에는 힘든 점이 있다.

8) 이 실제 없음에 대한 해석 중 한 가지를 제안해본다면, 쳐들어온 일본군의 병력 수준을 평가 절하하여 그리 거대한 위협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동시에, 보다 간접적으로는 우리의 국력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군이 보이는 것과 달리 내실 즉, 실질적 병력이 형편없다는 속성을 신기루에 비유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일본군이 침입해 있고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군의 침입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이 노래의 향유자에게 어떤 정서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해성 출현과 일본군 침입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에 대한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해 더욱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해성 출현보다 일본군 침입이 먼저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이와는 별개의 또 다른 해석적 지평이 요청된다. 이때 화자에게 해성의 출현은 이미 침입해 있는 일본군의 징조가 아니라, 앞으로 들이닥칠지 모르는 또 다른 위협의 신호로 인식된다. 즉 해성의 출현은 일본군의 침입을 예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다 확장되고 미래지향적인 위협 상황의 징조인 셈이다. 이 경우 화자는 이미 침입해 있는 일본군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해성의 출현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I)에서 청자에 대하여 현재의 위협 상황(일본군 침입)에 대한 심리적 대비를 마련하고 있다면 (II)에서는 그와는 어느 정도 별개로 미래의 위협 상황에 대한 심리적 대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일본군이 침입해 있는 현실 맥락과 결부해본다면, 바로 이 두 번째 가능성 역시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생각된다.

화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I)에서 ‘건달과의 논 성(신기루)’를 일본군으로 착각했듯이 (II)에서는 ‘길 쓸 별’을 해성으로 착각한다. 앞에서 ‘건달과의 논 성(신기루)’와 일본군의 의미 관계가 해석에 있어 중요했듯이, ‘길 쓸 별’과 해성 간의 의미 관계 역시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6행의 ‘月置八切爾數於將來尸波衣’ 해독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그 해독을 다르게 한다는 점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양주동은 이를 ‘달도 브즈리 허렬바에’의 표기로 이해하고 ‘달도 부지런히 등불을 켜는데’로 해독했고, 홍기문은 ‘달도 브지리 헤렬 바에’의 표기로 이해하고 ‘달수를 브지러니 헤여 갈제’로 해독했다. 이어서 김완진은 ‘드라라도 ㄹ

르그시 자자렬 바애'로 이해하고 '달도 갈라 그어 잏아들려 하는데'로 해독했다. 여기서 먼저 홍기문의 해독은 5행과 6행의 주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세 화랑의 산 유람을 들은 존재와 달수를 헤아려 가고 있는 존재의 주어 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문맥 상 6행의 주어는 세 화랑의 산 유람을 들은 존재가 되어야 해석이 보다 자연스럽게 된다. 이 점에서 '月'은 양주동과 김완진의 해독과 같이 자연물인 달로 해독해야 할 것이다.

양주동과 김완진은 6행의 주어를 '달'로 본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술부에 대한 해독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양주동은 달이 부지런히 등불을 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해독했지만, 김완진은 오히려 달이 점차 잏아드는 것, 즉 활동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중인 것으로 해독했다. 그런데 김완진의 해독을 따르게 되면, 6행의 존재 의의 또는 그 기능의 행방을 찾기가 묘연해진다. 5행에 나타난 세 화랑의 산 유람과 7행의 '길 쓸 별'의 존재가 서로 의미상 연루되는 반면에, 6행은 5행 및 7행과 의미상의 연관관계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양주동의 해독을 따르게 되면, 달과 '길 쓸 별'이 '화랑의 산 유람'을 도와주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게 되므로, 삼행 간의 의미상 연루 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해독의 논란이 되는 이 부분에서도 양주동의 해독을 따르고자 한다.

화자는 세 화랑이 산을 오르내리는 길을 밝혀주고 쓸어주는 존재로 '달'과 '길 쓸 별'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길쓸별은 세 화랑에게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달과 기능상의 등가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일본군을 '건달파의 논 성(신기루)'와 대응시킨 것과 혜성을 '길 쓸 별'과 대응시킨 것은 서로 다른 인식에 근거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인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살펴본 바대로 '건달파의 논 성(신기루)'이 실제 없는 현상으로서 화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없는 명백한

자연현상임에 반해, ‘길 쓸 별’은 화자의 주관적 해석이 가미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즉 ‘건달파의 논 성(신기루)’와 일본군은 본질상 서로 다른 존재라 확신할 수 있지만, ‘길 쓸 별’과 해성의 존재 구분은 확실하지 않은 셈이다. 설화 텍스트의 내용을 비추어봤을 때 이미 해성이 출현한 시점에서 <해성가>가 창작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화자는 다른 모든 이들이 해성으로 여기는 그 어떤 별을 ‘길 쓸 별’이라고 여기는 셈이다. 이때 ‘길 쓸 별’은 세 화랑에게 달과 같이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화자의 개인적 해석이 가미된 용어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자는 명백한 해성의 실체를 두고 ‘길 쓸 별’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해성의 존재를 인정하되, 해성이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이 별은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달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 부분을 해성의 존재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여기고자 한 의도로 읽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기존 논의에서 해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현실에 닥친 위기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여기는 (Ⅲ)에서는, 오히려 이 점이 더욱 잘 설명된다.

(Ⅲ)

後句 達阿羅浮去伊叱等邪

아으, 달은 저 아래로 떠갔더라.

此也友物比 所音叱彗叱只有叱故

이 보아, 무슨 해성(彗星)이 있을꼬.

(Ⅲ)에서 화자는 달이 저 아래로 떠나 가버렸기 때문에 해성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Ⅱ)에서 살펴본 바대로 달과 해성이 맺는 기능상의 연루가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달이 떠나갔으므로 달과 같이 세 화랑에게 길을 밝혀주고 쓸어준 별 역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 역시 ‘혜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인지, ‘혜성’이 지녔다고 여겨지는 불길한 징조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인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혜성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혜성의 부정적 기능만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문을 보면 (II)에서는 ‘彗星’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반해, (III)에는 ‘慧叱’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慧叱’이 없다는 것을 혜성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치부하는 것보다, ‘慧叱’을 ‘혜성스러움’으로 해독하여 혜성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문에 충실한 해독이 됨과 동시에, 보다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혜성가>의 화자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되, 그 의도에서 비합리적이고 주술적인 힘에만 기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혜성가>의 의미 구조를 면밀히 관찰했을 때 화자는 노래를 지어 부름으로써 현실의 위기 상황 자체를 타개하려 하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적 국면을 변화시키는 데 좀 더 치중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화자의 노력은 상당한 합리성을 갖춘 채로 <혜성가>의 의미 구조 속에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혜성의 출현과 일본군의 침입 간의 사건적 속성이 서로 다름을 인지하여, 문제 해결이 절실한 현실적 위기에 대한 내용을 노래의 앞부분에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혜성가>에서 각 시절마다 사용하고 있는 시어들 간의 의미 관계 구도는 더욱 의미심장하게 이 작품의 합리적 성격을 뒷받침하고 있다. ‘건달파의 논성’이라는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본군의 침입 자체는 실제 현상으로 인정한 동시에 그 실체 없음을 문제 삼는다는, 보다 현실적인 논리를 내세운 점, 이와 유사한 논리로 혜성을 ‘길 쓸 별’이라고 표현함으

로써 혜성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마찬가지로 시어 ‘慧叱’의 사용을 통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이상 <혜성가> 시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설화 텍스트를 참고하여 분석한 결과 이 작품의 태생적 기반은, 설화 텍스트에서 드러난 주술적 면모와는 어느 정도 동떨어져 있으며, 오히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주가는 반드시 노래의 내적 구조에서도 주술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일까? <혜성가>의 주술성을 인정하는 논의에는 대부분 설화 텍스트에서 시 텍스트의 창작과 향유가 주술적인 목적에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고 하여, 시 텍스트의 내적 구성에도 주술성이 형상화되어 있음을 거의 당연시하고 있다. 그런데 <혜성가>가 노래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노래의 내용 즉 가사 층위와 노래가 불리는 연행의 층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주술성이 가사 층위와 연행의 층위 중 어느 한 군데에만 귀속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 군데 모두에 귀속되어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필요성이 마련된다고 할 것이다.

설화 텍스트의 내용에 따르면 <혜성가>가 주가로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설화 텍스트의 내용이 <혜성가>의 주술적 기능을 지시하고 있다고 해서 <혜성가>의 내적 의미 구조에도 주술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화자는 현실의 위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응하

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현실세계에서 이미 존재해 있는 혜성과 일본군을 착각이라고 여기는 <혜성가>의 어법을, 고대의 주술 관습과 연관시켜 어떻게든 주술적 어법으로 해명하려는 기존 논의는 다음의 질문과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설화 텍스트에서 <혜성가>의 주술적 기능을 언급(‘용천사가 혜성가를 지어 부르자 혜성의 변괴가 없어지고 일본의 군대도 되돌아갔다.’라고 기술된 부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 텍스트의 분석만을 통해서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겠는가라고 말이다. 시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최우선적으로 행하지 않고, 설화 텍스트의 분석의 결과가 시 텍스트의 분석 결과를 압도하여 <혜성가>의 주술성을 그대로 인정해버린다면, 그것은 과연 문학적 논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화 텍스트에 비록 내용상 비사실적이라 하더라도 명백히 제시되어 있는 <혜성가>의 주술적 기능은 어떻게 파악해야 옳을 것인가.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혜성가>의 주술적 기능은 <혜성가>의 가사 층위 즉 텍스트 내부 구조가 아니라 그것이 불리어지는 연행 맥락에서 찾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임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싶다.⁹⁾ 이 글에서는 시 텍스트의 내부 구조상 의미와 주술성의 연관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였으므로, 연행 층위와 관련한 주술성에 대해서는 살피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후속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9) 윤영옥은 그의 논의에서 변괴를 물리친 것은 혜성가의 주술적 성격뿐만 아니라 초인적 능력 소유자와 변괴를 물리칠 것을 간절히 원하는 발원자 사이의 상호교감이 있을 때 발휘된 것이라 보았다는 점에서 크게 보아 필자의 문제의식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윤영옥, 앞의 책, 28~30쪽 참조.

참고문헌

- 김승찬, 『한국상고문학연구』, 제일문화사, 1978.
김열규, 『한국 민속과 문화연구』, 일조각, 1980.
김완진,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1.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박인희, 『삼국유사와 향가의 이해』, 월인, 2008.
성호경, 『신라향가연구』, 태학사, 2008.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0.
양주동, 『增訂古歌研究』, 박문서관, 1942.
오출세, 『새로 읽는 향가문학』, 아세아문화사, 1998.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0.
이능우, 「향가의 매력」, 『현대문학』 21, 1956.
이재선, 『향가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2001.
임기중, 「향가의 주사적 시문법」, 『동국논총』 32, 1993.
최경실, 「향가의 주술성」, 성균관대학교, 1983.
홍기문, 『향가 해석』, 평양 : 북한 과학원, 1956.

〈Abstract〉

The Structural Character of Hyeseongga
—Focusing on the Controversy of Shamanism—

Son, Dong-kuk

Hyeseongga, a traditional poetry from the Silla dynasty, has been mostly discussed focusing on its shamanistic aspects. The part of the text as below was the basic premise of ainstream's argument of the discussion which decided the nature of genre for Hyeseongga : As Hyeseongga was song which is written by Yungcheonsa, an extraordinary disaster of Hyeseong was disappeared and Japanese troop was also withdrawn.

However, should some questions be raised as below : first, if the judgment could be said as a decision based on literary discussion which says Hyeseongga is shamanic since the text of the tale has shamanistic character?; second, if the discussion can be grounded on the unrealistic context of the tale, saying both Hyeseong and Japanese troop were disappeared as Hyeseongga was song?

This paper emphasizes to analyze the text of the poetry, Hyeseongga, and studies if Hyeseongga can be regarded as the incantation. It also discuss a proper method to study the shamanistic character of Hyeseongga refer to the text of the tale though reasonable judgment.

Therefore, the speaker of Hyeseongga seemed rather logical than

irrational and shamanistic. The narrator strongly showed strong will to set listeners at ease on contemporary situation and tried to encourage people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as he or she showed positive perspective. On the other words, it could be said that the text of the tale has shamanistic function, however, there is little shamanistic character in the inner meaning structure of Hyeseongga. The shamanism in Hyeseongga would be mainly studied rather at performance level than at meaning level. A concrete following discussion on this topic would be requested.

Key words : Hyeseongga, shamanism/shamanistic character, shamanistic function, incantation, Hyangga, a poetry from Shilla Dynasty

접수일자 : 2013년 7월 10일

심사완료 : 2013년 7월 31일

게재확정 : 2013년 8월 7일